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12. 4.(금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물류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배성, 사무관 곽병철, 주무관 김영두 • ☎ (044) 201-3998, 4003	
보도일시		2020년 12월 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6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7일부터 3주간 대형 화물차 수소충전소 공모

- '21~'22년 10톤급 수소화물차 시범운행 추진 기반시설 구축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수송 분야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10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도입을 위한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현재 운영 중인 40여개의 수소충전소는 대부분 일반 승용차량의 충전을 목적으로 구축되어 충전용량이 작은 일반 수소충전소인데 비해,
 -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화물차 휴게소, 물류터미널 등 주요 물류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국내 경유기반 화물차를 수소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- 2017년을 기준으로 수송부문 중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(95.9%) 가운데 경유차로 인한 배출량은 56.3%, 전체 경유차 대수의 46.2%가 화물차로 인한 배출량으로 나타났다.
 - 또한 같은 연도 미세먼지(PM-10*)의 경우에는 도로이동 오염원 중 화물차 대수는 15.7%에 불과하지만, 배출량으로 보면 무려 68.4%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* PM-10 : 입자의 크기가 10 μ m 이하인 대기오염 물질

- 정부가 기존 경유 화물차를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,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수소차로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이다.
-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발표된 「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」에 따른 민간부문 화물차의 수소화물차 전환을 위한 시범운행 사업(2021~2022, 10톤급 5대 운행 예정)을 추진하기 위해,
 - 지난 5월 수소차 관계부처(산업통상자원부·환경부), 물류기업(CJ대한통운·현대글로비스·쿠광), 현대자동차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.
 - 이번 공모는 위 협약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의 기반이 될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으로, 향후 시범사업 경과를 보아가며 구축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제안을 받아 사업 타당성, 물류거점으로서의 입지 여건,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며,
 - 내년 1월말 수소화물차 충전소 구축 대상지 2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“수소화물차 전환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친환경 효과가 큰 분야”라며,
 - “대한민국이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곽병철 사무관(☎ 044-201-399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